

##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류 승 아†

경남대학교

건강한 사회는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다양한 집단이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사회를 구축해 감에 있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소수집단으로 규정되고 있는 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고, 접촉경험과 위협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편견의 구체적인 측정은 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살펴보고, 접촉경험은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미디어 등을 통한 정보적 접촉)으로 분류하였으며, 위협감도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 인원은 총 376명으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이 가장 높았고, 위협감을 높게 느낀 집단은 탈북자와 다문화가정으로 나타났다. 위협감은 모든 집단의 편견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지만, 접촉경험은 그 종류에 따라 각 집단에 작용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통합이론에서 제시하는 위협감을 매개로 하는 접촉경험과 편견의 관계 역시 각 집단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편견 감소를 위한 접촉의 활용은 집단에 따라 다른 방식의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감소 방안과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편견, 사회적 거리감, 접촉, 위협감, 소수집단

\* 본 연구는 2016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류승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631-70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7(월영동)

Tel : 055-249-6412, E-mail: seungahryu@kyungnam.ac.kr

현재 한국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경제 및 정치 영역을 포함한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사회 영역의 변화에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및 출산을 저하, 경제 영역의 변화에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몰락의 여파, 정치 영역에서는 2016년 겨울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로 인한 정치적 관심의 증가와 새로운 정권의 탄생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는 실질적인 다원 사회(pluralistic society)로 접어들고 있다. 다원 사회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거나 또는 내가 속한 내집단과 다른 성격의 집단이 우리 사회에 공존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및 이동주(2007)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상호간 존중과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다원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소수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 및 차별과 관련한 것이다. 우리 사회 소수집단 구성원들과의 공생의 의미를 다원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각 소수집단들이 각자의 문화를 존중받으며 다른 집단과의 공존을 바탕으로 편견과 차별없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탈북자, 다문화가정 또는 성소수자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게이 인권운동 단체(친구사이)는 2015년 11월에 정기총회를 목적으로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의 대관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였다. 수련관 측은 신청 시간에 다른 행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내부 사정을 이유로 거절하였다(민주사회를 위한 한국 변호사 모임, 2016). 또한, 한국인권위원회(2017년, 4월 4일자)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인권위원회로 접수된 장애 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해마다 증가하여 총 10,320건에 이르고,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 접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총 17,795건이라고 보고하였다.

편견 및 차별이 가져오는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분위기는 다음의 이유에서 우리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첫째,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는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최이정, 2009). 특히 이 집단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직업 장면에서 여실이 드러났다(이달엽, 이승욱, 박현진, 2003; 이형렬, 이화진, 2005). 둘째,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인식이나 태도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송수지, 김정민, 2008). 역으로 생각하면 태도의 변화는 행동 양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 사회에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확산되면, 지금껏 당연시 되거나 묵과되었던 부당한 차별 역시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탈북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더 다양한 소수집단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명백히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 편견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결 구조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조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예, 김혜숙, 2007; 류승아, 2012; 박석돈, 조주현, 천지은, 2002; 홍성원, 이인혜, 2015; Jackson & Heartheringron, 2006).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사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편견을

“올바르지 않음’ 또는 ‘정확하지 않음’과 같은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Brown, 2017, p.19). 또 다른 시각에서는 편견을 외집단과 내집단의 차이로 보고, “그 사회에서 구별하는 범주 또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의해 발생하는 다른 범주 또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기도 한다(Samson, 1999, p.4, Brown, 2017 재인용).

한국인들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큰 편이다(김금미, 안상수, 2014; 김혜숙, 2007). 그 이유 중 하나로 김금미와 안상수(2014)는 한국인들은 ‘달일민족’이라는 사실이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은 성숙한 다문화의식의 형성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외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러 소수집단들 중에서 본 연구는 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그리고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집단들은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주장이 다수집단들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상학, 2004).

이 집단들 중 먼저 탈북자들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의 편견 실태를 살펴보면, 탈북자들 중 25%이상이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남북하나재단, 2014), 직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조직생활의 적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숙, 2013). 또한, 2000년대 이후에 탈북자들에 대한 연민은 높아졌지만, 가까운 인간관계(예, 결혼, 친구)는 여전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혜숙, 2007;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보다 탈북자들에게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서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양계민, 2009).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하여 심리적 거리감이 높고(윤인진, 2015),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은 낮게 나타났다(황정미 등, 2007). 구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은 2010년에는 60%로 나타났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49.6%로 낮아졌다(윤인진, 2016). 수용성의 저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자신과 동일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감소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졌음을 뜻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성소수자 학생인권 실태조사(무지개 행동 이반스쿨, 2012)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응답자 53.8%가 학교에서 그들의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차별의 내용으로는 자신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 또는 평균 취급을 하거나 비하 발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종로 3가 거리에서 30대 남성이 동성애자를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16). 또한, 100여개 국가에서 실시한 세계가치조사(제 6차)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고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원숙연, 2017). 심지어 성소수자는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혐오집단으로 분류되는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조사에서는 동성애자가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뉴라이트 등의 다른 9개 집단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였다(가상준, 2016).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관련한 박근우와 서미경(2012)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지

만 같은 지역사회나 이웃으로는 꺼려하는 상반된 태도가 나타났다. 이는 정신병동 등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와 보호,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결혼, 양육, 취업 등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민화, 서미경, 최경숙, 2016).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측정함에 있어, 긍정 혹은 부정의 태도가 행동과 일치되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단순한 태도 조사보다는 행동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과 척도이다. 사회적 거리감은 친구하기, 이웃하기, 또는 동료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상대방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려는 의지를 알아볼 수 있다(Triandis, 1964). Link, Yang, Phelan 및 Collins(2004)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정의를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낙인받고 있는 집단의 사람들과 사회적 활동을 함께 하려는 의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함으로써 알아보려고 한다.

#### 접촉경험과 편견의 관계

1950년대 Allport(1954)가 접촉 이론을 제시한 이후 다양한 맥락과 다양한 조건에서 접촉 이론을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접촉의 효과는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예, 김금미, 안상수, 2014; 류승아, 2012; 이민화 외, 2016; Corrigan, Larson, Sells, Niessen, & Watson, 2007; Hewstone & Swart, 2011; Hodson, Hewstone, & Swart, 2013; McLaren, 2003; Pettigrew & Tropp, 2006). 접촉 이론의 요지는 다른 집단과의 접촉경험은 그 집단 구성원과의 친숙함을 만들고,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정

적 태도와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Couture & Penn, 2006; Link & Cullen, 1986).

접촉경험과 편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중 한국에서 진행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들 중 결혼이주 여성과의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 이들에 대한 행동 의도에 한국인 정체성이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지만,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 정체성이 이들에 대한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김금미, 201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금미와 안상수(2014)의 연구에서는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들에 대한 수용 행동, 수용 행동의도 및 행동 통제 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탈북자 또는 북한인 문화와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수현, 송영훈, 2015), 또한 이들에 대한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은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부정적인 정서도 높았지만 연민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정진경, 2005).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탈북자를 비롯한 이주민 집단들(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등)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는 접촉 빈도가 편견 감소를 잘 예측하였다(김혜숙 외, 2011).

성인 이성애자가 성소수자와의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나타났다(Lehavor & Lambert, 2007; Smith, Axelson, & Saucier, 2009). Smith 등(2009)은 1974년부터 조사된 41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접촉이 성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이 성소수자와 접촉한 경우 이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기존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짐을 발견하였다(Mata, Ghavami, & Wittig, 2010).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접촉의 국내 연

구는 김상학(2004)의 연구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이들과의 통합 교육이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김예순, 백형원, 남영희, 김선용, 김명, 2015), 해외의 다른 연구들(Tervo, Ralmer, & Redinius, 2004; Wai & David, 2006)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의 중요한 요소를 접촉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접촉과 편견과 관련한 많은 국내의 연구들은 정신장애인과 접촉 경험은 편견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류승아, 2009; 류승아, 2010; 이민화 외, 2016; Corrigan et al., 2007; Couture & Penn, 2006; Covarrubias & Han, 2011).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접촉 경험을 살펴본 류승아(2012)의 연구에서는 가족 중 정신장애인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인들의 직업능력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민화 등(2016)은 조현병과 우울증의 예시문을 제시하여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접촉했던 경험들을 조사한 결과, 접촉 경험은 이들에 대한 차별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촉효과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조사들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접촉과 함께 정보적 접촉(informational contact), 즉 여러 정보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여성가족부(2013)는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접촉의 인상을 조사한 나금실(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뉴스를 통해서 온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경험하였고, 다큐멘터리나 드라마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접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간접 접촉과 편견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대중매체나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 외에도, Blalock(1984)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 외 집단 구성원과 긍정적인 접촉을 한다는 정보만으로도 편견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확장된 집단 간 접촉 이론(extended intergroup contact hypothesis)이라고 한다(Pettigrew, 1998; Wright, Aron, McLaughlin-Vople, & Ropp, 1997). 이는 내집단의 나와 가까운 사람이 외집단의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외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접촉에 대한 사회 전체의 기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나 개인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Tropp & Bianchi, 2006). 그러므로 개인 수준의 직접 접촉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긍정적인 간접 접촉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 사는 사람보다 낮은 편견을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Hewstone, 2015).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과 함께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확장된 집단 간 접촉의 경우도 간접 접촉으로 포함하였다.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을 모두 포함한 123개(총 11371명)의 접촉 개입 연구를 메타 분석한 Lemmer와 Wagner(2015)는 직접 접촉 뿐만 아니라 간접 접촉 또한 집단 간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변화된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이 살펴본 연구들은 중동과 같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있는 곳에서도 효과를 발휘하였을 뿐 아니라, 긍정적 태도는 접촉한 개별 대상이 속한 집단 전체로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직접 접촉 또는 간접 접촉을 조사해 오고 있지만, 국내 연구에서 이 두 종류의 접촉을 동시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따져본 연구는 거의 없다. 만약, 직접 접촉의 경험이 낮은 집단에서 실제로 간접 접촉의 경험이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소수 집단에

다른 접촉 개입 방법 역시 세분화되고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적 간접 접촉이 각 집단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다양한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개입 프로그램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을 동시에 고려하여 소수집단 별로 이들 접촉 요인이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위협감과 편견의 관계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위협감을 들 수 있다(Meeus, Duriez, Vanbeselaere, Phalet, & Kuppens, 2008; Stephan & Stephan, 2000; Stephan, Renfro, Esses, Stephan, & Martin, 2005). 위협감의 첫 번째 종류로는 부족한 자원을 경쟁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위협(realistic threats)이 있다(Cursey, Stoop, & Schalk, 2007). 이는 외집단으로 인해 일자리 등의 경제적 경쟁, 토지나 제한된 자원에 대한 갈등, 복지정책 등의 재화 분배 문제, 그리고 자신의 집단에 물리적 안전이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Brown, 2017). 이를 경제적 위협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황정미, 2016).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들이 가장 많이 차별을 받은 곳은 직장 및 일터(2.5%)로 상점/음식점(1.7%) 및 공공기관(1.5%) 등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이 결과에 대하여 김혜순과 이시철(2014)은 이들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차별을 가져 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실제로 교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들에 의한 일자리 위협, 경제적 손실 및 범죄율 상승 등의 위협감이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최만식, 조용하, 2014). 또한, 2007년부터 2015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황정미(2016)의 연구는 청년층들의 경우 실업이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느낄수록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

적 거리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다른 위협의 종류로는 상징적 위협(Symbolic threats)이 있다(Stephan & Stephan, 2000). 이는 외집단이 자신의 생활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집단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생기는 것으로, 종교, 세계관, 문화/전통 및 언어 등의 집단의 고유한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Brown, 2017). 만약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믿음을 훼손한다고 인식한다면, 그 집단에 대한 편견 및 적대감은 높아질 것이다. 탈북자 4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차별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말투 또는 생활 방식 등이었다는 조사는 남한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문화 및 전통 양식에 대한 거부감이 탈북자에 대한 편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뉴시스, 2016, 12월 28일자).

유럽 17개국을 대표하는 총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McLaren(2003)의 연구 결과에서 현실적 위협 및 상징적 위협이 높을수록 ‘자국에 와 있는 외국 이민자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등의 문항이 담긴 편견 척도에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황정미(2016)의 연구에서도 20대의 경우 위협감이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약 75%를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위협감은 집단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alomir-Pichastor, Munoz-Rojas, Invernizzi, & Mugny, 2004; Jackson, 1993; Stephan, Ybarra, & Bachman, 1999).

현재 한국인들이 소수집단들에게 가지는 위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한 각 집단에 따라 위협의 종류가 다른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편견 및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 편견의 통합위협이론 적용

소수집단이 편견과 차별을 받는 이유 중 하

나는 다수집단들이 소수집단을 외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경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외집단에 대한 편견 발생을 추측하는 많은 이론들 중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통합위협이론이다(Stephan & Stephan, 2000). 통합위협이론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집단 간 상황에서 연구되었고, 대부분 이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Meeus et al., 2008; Stephan et al., 2005). 이 이론은 많은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접촉경험, 위협감, 그리고 편견의 관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통합위협이론에서는 접촉의 효과가 위협감을 떨어뜨려서 편견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협감이 접촉과 편견의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그림 1).

위협감의 매개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McLaren(2003)은 유럽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접촉이 반이민자 편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하면서, 특히 이민율이 높아서 접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위협감도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ausch, Tam, Hewstone, Kenworthy 및 Cairns(2007)는 인식된 집단 간 위협은 접촉에 대한 집단 간 태도와 외집단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매개함을 발견하였다. 국내 연구 중 최만식과 조용하(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중매체에서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접한 정도

가 이들에 대한 위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위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위협감의 매개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김상학(2004)의 연구 결과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들과의 접촉경험을 통해 부정적 감정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인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접촉 경험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백승대와 안태준(2013)은 경북 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이민 여성이나 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접촉경험, 위협감, 그리고 편견과의 관련성을 통합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적용한 연구는 없다. 또한, 이 이론이 모든 소수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접촉경험과 간접 접촉경험이 위협감을 매개로 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다양한 소수집단에 따른 편견의 형성과정과 관련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다면 각 집단에 대한 편견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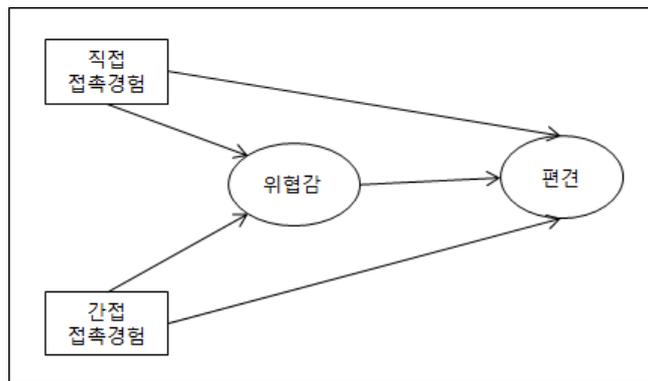


그림 1.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에 대한 통합모형

##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분류되는 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사회적 거리감)에 접촉(직접/간접)과 위협감(실질/상징)이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의 통합위협이론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에도 적용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소수집단(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간의 편견 정도, 접촉(직접/간접) 및 위협감(실질/상징)은 차이가 있는가.
2. 각 소수집단(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의 경험 여부가 각 집단에 대한 편견에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는가.
3. 각 소수집단(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느끼는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은 각 집단에 대한 편견에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는가.
4. 접촉경험, 위협감 및 편견을 설명하는 통합이론이 각 소수집단에 적용되는가.

## 연구방법

### 연구 대상

설문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몇 개의 지역(경남, 부산, 서울, 충남 등)을 대상으로 4년제 대학의 총 393명이 참여하였고, 설문지 미완결 등의 탈락자를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은 376명이었다. 남녀 비율은 남학생 164명(43.6%), 여학생 212명(56.4%)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2.87세( $SD=1.95$ )이었다.

### 측정도구

####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Scale: SDS)

각 집단의 편견을 살펴보기 위해 Hand와 Tryssenaar(2006)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질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친구, 이웃 및 회사 동료가 될 의향을 질문하였다. 이 3문항은 4점 척도로써 ‘전혀없다(1)’에서 ‘강하게 있다(4)’로 구성되었으며,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역코딩을 실시하여, 본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각 집단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상호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실질적 위협(Realistic Threat)

실질적 위협은 Stephan 등(1999)의 연구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문항 중 3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대상 집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A는 우리의 세균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는 “A는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상징적 위협(Symbolic Threat)

상징적 위협은 실질적 위협과 마찬가지로 Stephan 등(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A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신념이나 가치를 훼손한다” 또는 “A의 도덕 또는 종교적 신념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 등이 있다. 각 집단 별로 3개의 문항을 질문하였고, 실질적 위협과 동일한 배점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Cronbach's  $\alpha$ )는 .92 이었다.

**직접 접촉: 개인의 접촉경험**

각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과 접촉경험(가족, 친구, 일터, 공공장소)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접촉 여부는 이 중 한 종류의 접촉이라도 하였다면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간접 접촉: 정보적 접촉경험**

직접 접촉과 마찬가지로 각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매체(TV, 신문 등), SNS(트위터, 블로그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이 중 한 종류의 접촉이라도 하였다면 간접 접촉경험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변인들에 대한 각 집단 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one-way 반복측정(Repeated Measurement)을 실시하였고, 접촉과 위협이 편견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 분석은 성별과 나이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통합이론이 각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MOS를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경로를 검증하였다.

**결 과**

**집단 간 편견, 접촉경험 및 위협감의 차이**

다섯 집단 간 편견, 접촉경험 및 위협감의 차이에 대한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사회적 거리감이 나타난 집단은 정신장애인( $M=2.98, SD=1.06$ )이었고, 가장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보인 집단은 다문화 가정( $M=2.01, SD=0.81$ )이었다. 즉, 대학생들은 정신장애인과 이웃, 친구, 또는 동료로 일하는 것을 가장 꺼리며, 반면 다문화가정의 사람들과는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다른 집단에 비하

표 1. 집단 간 편견(사회적 거리감), 접촉경험, 위협감의 one-way 반복측정 결과

	탈북자 <sup>a</sup>	다문화 가정 <sup>b</sup>	성소수자 <sup>c</sup>	신체 장애인 <sup>d</sup>	정신 장애인 <sup>e</sup>	F <sup>1)</sup>	사후검증 <sup>4)</sup>
사회적 거리감 <sup>2)</sup>	2.24 (.88)	2.01 (.81)	2.34 (1.03)	2.17 (.82)	2.98 (1.06)	118.59***	e>c>a>d>b
직접 접촉경험 <sup>3)</sup>	.21	.50	.32	.78	.69	155.71***	d>e>c>b>a
간접 접촉경험 <sup>3)</sup>	.89	.91	.93	.92	.92	2.47*	c, d, e, b>a
실질적 위협 <sup>2)</sup>	3.44 (1.36)	3.33 (1.42)	2.18 (1.30)	2.78 (1.31)	2.64 (1.33)	87.94***	a>b>d>c>e
상징적 위협 <sup>2)</sup>	3.09 (1.40)	3.17 (1.47)	2.92 (1.63)	1.99 (1.12)	2.24 (1.26)	106.23***	a, b>d>e>c

<sup>1)</sup> 구형성 검증을 기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변량 검정의 Pillai의 트레이 수치를 사용함.

<sup>2)</sup> 사회적 거리감과 실질적/상징적 위협의 수치는 평균(표준편차)을 나타냄.

<sup>3)</sup> 접촉경험은 '없음'을 0, '있음'을 1로 코딩하여 나타난 평균으로, '있다'고 답한 %와 동일함.

<sup>4)</sup> 사후검증은 LSD 기법을 사용하였음.

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접촉 여부를 살펴보면, 직접 접촉경험은 신체 장애인(78%)과 정신장애인(69%)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탈북자와 성소수자는 각각 전체의 21%와 32%로 경험 비율이 낮았다. 이와 비교하여 간접 접촉경험은 다섯 집단 모두에서 90% 전후의 경험 응답을 볼 수 있었다.

실질적 위협을 가장 높게 느낀 집단은 탈북자( $M=3.44$ ,  $SD=1.36$ )와 다문화가정( $M=3.33$ ,  $SD=1.42$ )으로, 이는 다문화가정과 탈북자 집단의 구성원들로 인해 세금 부담이나 본인에게 돌아오는 사회적 이득이 줄어든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 위협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M=2.18$ ,  $SD=1.30$ ). 상징적 위협도 실질적 위협과 유사하게 탈북자( $M=3.09$ ,  $SD=1.40$ )와 다문화가정( $M=3.17$ ,  $SD=1.47$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적 위협은 가장 낮았던 성소수자( $M=2.92$ ,  $SD=1.63$ ) 집단이 상징적 위협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상징적 위협이 가장 낮은 집단은 신체장애인 집단이었다( $M=1.99$ ,  $SD=1.12$ ).

각 집단의 편견에 대한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의 설명량

먼저 각 집단별로 직접 접촉경험과 간접 접촉경험이 사회적 거리감에 어느 정도의 설명량을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여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탈북자의 경우, 간접 접촉은 사회적 거리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지만( $\beta=-.11$ ,  $p<.05$ ), 직접 접촉은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다문화가정 역시 간접 접촉 여부는 편견의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작용하였지만( $\beta=-.12$ ,  $p<.01$ ), 직접 접촉은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직접 접촉이 유의미한 설명을 하였지만( $\beta=-.15$ ,  $p<.01$ ), 간접 접촉 여부는 그렇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탈북자와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간접 접촉이 많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낮고, 성소수자는 직접 접촉이 많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성소수자의 경우 특이한 사항은 성별( $\beta=-.19$ ,  $p<.001$ )이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여주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

표 2. 각 집단별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의 경험이 편견을 설명하는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

	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B	S.E.	B	B	S.E.	B	B	S.E.	B	B	S.E.	B	B	S.E.	B
성별	-.03	.09	-.02	-.06	.08	-.04	-.39	.10	-.19***	.07	.08	.04	-.02	.11	-.01
나이	.02	.02	.05	-.01	.02	-.01	.03	.03	.05	.02	.02	.06	-.01	.03	-.01
직접접촉경험	-.15	.10	-.07	-.14	.08	-.09	-.33	.10	-.15**	-.24	.10	-.12*	-.29	.11	-.13*
간접접촉경험	-.31	.13	-.11*	-.35	.14	-.12*	-.35	.18	-.08	-.25	.15	-.09	-.31	.19	-.09
F	2.50*		3.56**			10.70***			3.61**			3.25*			
R <sup>2</sup>	.02		.03			.09			.03			.03			
Adj. R <sup>2</sup>	.01		.02			.08			.02			.02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dummy 변인으로 분석함.  
 접촉경험은 0=없다, 1=있다고 dummy 변인으로 분석함.  
 \* $p<.05$ , \*\* $p<.01$ , \*\*\* $p<.001$ .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신체장애인( $\beta = -.12, p < .05$ )과 정신장애인( $\beta = -.13, p < .05$ )은 성소수자와 유사하게 직접 접촉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 사회적 거리감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간접접촉의 유의미한 설명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집단의 편견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의 설명량

표 3은 각 집단의 편견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에 대한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다.

편견에 대한 위협의 설명량은 모든 소수집단에서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이 모두 편견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설명함에 있어 위협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위협이 편견에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인 집단은 다문화가정( $\beta = .31, p < .001$ )이었고, 상징적 위협이 편견에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인 집단은 성소수자( $\beta = .38, p < .001$ )로 나타났다.

통합이론의 적용

통합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접촉, 위협감 및 편견의 관계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직접 접촉경험과 간접 접촉경험이 위협감을 매개로 편견으로 가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각 집단별 구조방정식 적합성 수치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결과 분석을 위한 적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경로 분석의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경로 분석에서 보인 간접효과와 결과는 95% 신뢰구간의 bootstrapping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탈북자의 경우, 표 2의 결과와 동일하게 직접 접촉경험은 사회적 거리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했고, 간접 접촉경험은 위협감을 매개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95%의 신뢰 구간 간격(CI: -.391 ~ -.014)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은

표 3. 각 집단별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이 편견을 설명하는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

	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	-.07	.08	-.04	-.09	.08	-.06	-.35	.08	-.17***	.08	.08	.05	.00	.10	.00
나이	.00	.02	.00	.00	.02	.00	.01	.02	.01	.02	.02	.05	-.01	.03	-.01
실질적 위협	.11	.03	.17***	.17	.03	.31***	.21	.03	.27***	.15	.03	.24***	.14	.04	.18***
상징적 위협	.21	.03	.34***	.07	.03	.13*	.24	.03	.38***	.19	.04	.26***	.20	.04	.23***
F	29.84***			21.17***			65.73***			26.16***			16.73***		
R <sup>2</sup>	.21			.16			.37			.19			.13		
Adj. R <sup>2</sup>	.20			.15			.36			.18			.12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dummy변인으로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

1) 위협감은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이 모두 편견에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였으므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위한 분석에서는 하나의 변인으로 상정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에 사용되는 위협감은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을 측정변수로 지정하여 모델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림에는 위협감의 측정변수를 표기하지 않았다.

표 4. 각 집단별 구조방정식 적합도 지수

	X <sup>2</sup>	GFI	NFI	TLI	CFI	RMSEA
탈북자	15.72	.99	.99	.99	.99	.03
다문화가정	57.62	.97	.97	.95	.98	.09
성소수자	52.97	.97	.97	.96	.98	.09
신체장애인	62.43	.97	.96	.93	.96	.10
정신장애인	54.24	.97	.96	.94	.9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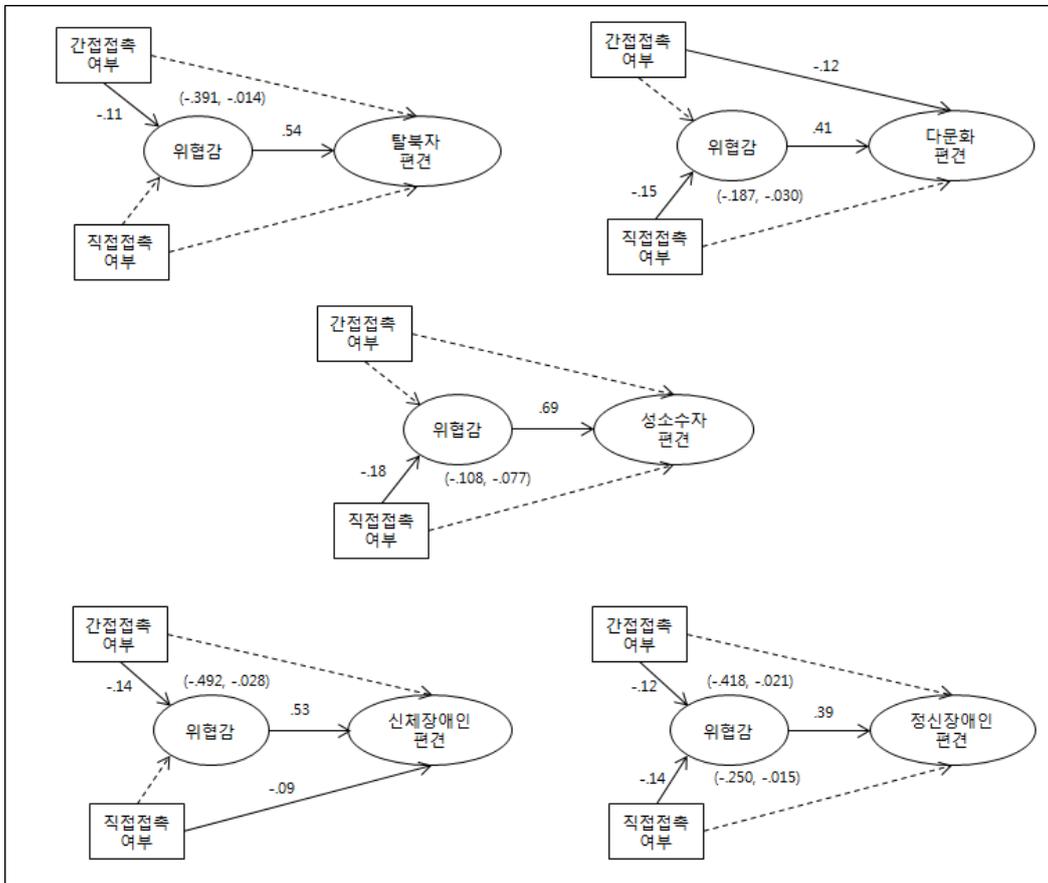


그림 2. 각 집단별 접촉여부, 위협감, 편견의 관계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델

\* 표기된 수치는 표준화 계수를 나타낸 것이며, 실선은 유의미한 경우, 점선은 유의도 수준 .05를 기준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 간접효과와 결과는 bootstrap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bootstrap을 이용해 추정한 95%의 신뢰구간 lower bounds와 upper bounds의 수치는 각 모델에 괄호로 표기함.

직접 접촉경험이 위협감을 매개로 편견에 영향을 끼쳤지만(CI: -.187 ~ -.030), 간접 접촉경험은 위협감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영향을 주었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접촉경험 모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접 접촉경험(CI: -.108 ~ -.077)이 위협감을 매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신체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간접 접촉경험이 위협감을 매개로 영향을 끼쳤고(CI: -.492 ~ -.028), 직접 접촉경험은 위협감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편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직접(CI: -.250 ~ -.015)과 간접(CI: -.418 ~ -.021) 접촉경험 모두 위협감을 매개하여 편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분석 모델은 표 2의 결과에 위협감을 매개 변인으로 추가 하였을 때 나타나는 보다 구체적인 접촉, 위협감 및 편견 간의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통합이론에서 주장하는 접촉, 위협 및 편견의 관계는 소수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과의 접촉경험, 각 집단에 대한 위협감 및 편견의 정도와 접촉 및 위협감이 편견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통합위협이론의 집단별 적용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한국 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인식되는 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중 친구, 이웃 및 동료로 지내는 것을 가장 꺼리는 집단은 정신장애인이었다.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크지 않은 집단은 다문화가정으로 대학생들은 이 집단의 구성원들과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크게 꺼려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편견과

차별을 받는 집단이 정신장애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편견 및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한 소수집단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이 가장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보였고, 다음으로 신체장애인, 탈북자, 성소수자, 정신장애인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였는데, 이 순서는 장애인,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지는 김상학(2004)의 연구와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이주노동자, 탈북자의 순서 결과를 보인 양계민과 정진경(200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다만,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구분없이 사용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결과를 따로 얻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다르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에 대한 연구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범주를 따로 두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성애자가 가장 높은 혐오집단으로 분류된 가상준(2017)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수준의 편견 및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정신장애인 및 성소수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접촉경험과 편견의 관계를 살펴보면, 탈북자와 다문화가정은 간접 접촉 여부가 편견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성소수자 및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직접접촉 여부가 편견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위협감을 매개로 한 통합 모델에서 도출된 보다 구체적인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위협감을 매개로 직접 접촉이 편견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경우만 직접 접촉이 편견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 효과 모두 보이지 않고, 간접 접촉경험을 통해서만 편견을 설명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추측으

로는, 다른 네 집단의 직접 접촉경험( $M_r=.32-.78$ )보다 탈북자 집단의 직접 접촉경험( $M=.21$ )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직접 접촉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직접 접촉의 효과와 관련하여 Putman(2007)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외집단에 대한 거부감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계속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들과의 잦은 접촉이 이어진다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직접 접촉 수준이 낮은 탈북자를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는 직접 접촉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인 수준을 비롯하여 조직, 지역, 사회 전체의 다양한 수준에서 소수집단들과의 접촉을 도모할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접 접촉의 경우, 성소수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에서 편견에 대한 직접효과 또는 위협감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를 보여주었다. 성소수자의 간접 접촉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간접 접촉의 경험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지 않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매체의 긍정적 전달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보적 차원에서의 간접 접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과 정부 차원에서 미디어를 동원한 참신한 홍보와 프로그램들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간의 직접 접촉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적 간접 접촉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여 심리적인 위협감을 줄여 공동체 전체의 편견 수준을 낮춤으로써 간접 접촉을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위협감은 모든 집단에 대한 편견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앞선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여성가족부, 2013; 최만식, 조용하, 2014; 황정미, 2016; Curseu et

al., 2007; Falomir-Pichastor et al., 2004; McLaren, 2003; Meeus et al., 2008; Stephan et al., 2005). 위협감이 편견 및 차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이다.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나면 대중매체들은 이 사건이 정신장애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들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증가시켜 위협감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신장애인을 향한 높아진 위협감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상승시키고, 이들의 격리를 요구하는 등의 인권 침해까지 번져갈 수 있다(이민화 외, 2016). 그러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위협감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하며, 이를 완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 위협이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높이는 집단은 다문화 가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집단보다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나 이들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혜택 때문에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상징적 위협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성소수자로, 이 경우는 이성애라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을 훼손한다는 생각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종류의 위협이 모든 집단에 유의미한 설명량을 갖는다는 것은 위협을 조성하는 잘못된 믿음이나 이제는 버려야 할 구시대적 가치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소수집단들을 향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곧 닥쳐올 다원 사회에서의 첨예한 갈등에 대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통합 이론을 바탕으로 각 집단의 매커니즘을 살펴 본 결과, 다섯 집단 모두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직접 접촉의 기회가 낮은 탈북자의 경우에는 간접 접촉을 높여 위협감을 매개로 편견을 낮출 수 있고,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간접 접촉경험보다는 직접 접촉경험을 높

여주는 것이 이들 집단의 편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편견과 불편함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정체감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낮춰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또한 소수집단들의 편견 감소를 위한 개입이나 지원이 일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소수집단을 대하는 주류 집단의 기본적인 사고 체계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개별 집단마다의 특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 제도 등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및 다원화된 사회에서 지녀야 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립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문제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되새겨 볼 만한 결과로는 유일하게 성소수자의 경우에만 성별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2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Kite와 Whitely(1996)의 결과와도 동일하고, 그 외 다른 많은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Hinrichs & Rosenberg, 2002; Steffens, 2005). 한국에서의 연구도 남성이 여성보다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원숙연, 2017; 이영선, 권보민, 이동훈, 2012),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태도도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용, 2016).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간의 신체접촉, 즉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이 남성 간의 신체 접촉에 비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장휘숙, 1995). 또 다른 의견으로는 여성이 스스로를 소수집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또 다른 우리 사회 소수집단에 대하여 관용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원숙연 2017). 그러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감소를 위해서는 남성의 시각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응답 대상이 대학생에 국한되어 다른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세대마다 소수집단에 대한 반응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 또는 탈북자의 경우, 성적체감과 한국전쟁경험 여부 등은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들에서는 세대에 따른 접촉경험, 위협감 및 편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합이론의 여러 요인들 중 접촉경험, 위협감 및 편견의 요인만을 추려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통합이론에서는 다른 요인들, 즉 인지적 요인이나 다른 정서적 요인들 역시 편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보다 많은 선행요인을 조사해 본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Allport(1954)가 접촉 이론을 제시한 후 뒤이은 많은 연구들은 단순한 접촉 여부 외의 접촉의 질이나 빈도, 또는 접촉 시 발생하는 긍정적인 소통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혜숙 외, 2011; 류승아, 2010; 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Pettigrew, 1998; Pettigrew & Tropp, 2006). 예를 들면, 회사 내 외국인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단순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크다고 답하였다(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간접 접촉의 경우에도 전달되는 내용이 중요할 수 있다. 우충완과 우형진(2014)의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범죄보도의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제노포비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접촉일지라도 그것이 연민이나 동정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이는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

는 건강한 다원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다원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단일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한국 사회가 다양한 성격의 집단, 다시 말해 다양한 소수집단들과 성숙한 태도로 함께 공생해야 하는 당면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소수집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부정적 시선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다양한 집단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힘들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분류되는 집단들에 대한 편견에 접촉과 위협감이 어떤 기제로 작용하는지의 메커니즘을 확인해 본 연구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다원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경험적 연구 자료들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문헌

가상준 (2016). 혐오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정치 관용 및 태도. *동서연구*, 28(3), 124-148.

권수현, 송영훈 (2015). 피를 나눈 형제, 이웃보다 못한 친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과 결정요인, 2007-2014. *오포티아*, 30(2), 123-159.

김금미 (2011).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1-16.

김금미, 안상수 (2014).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315-338.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5(1), 169-206.

김예순, 백형원, 남영희, 김선용, 김명 (2015). 보건학 전공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체중복장애연구*, 58(2), 185-201.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피러다임 구축: 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07-19-01)*.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사회에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김혜순, 이시철 (2014).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89-114.

나금실 (2016). 이주노동자에 관한 미디어 담론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친 영향. *인문사회*, 21(7), 105-122.

남북하나재단 (2014). 2014년 실태조사(탈북민, 탈북청소년) 및 사회조사 결과 공표. Retrieved 2017년 7월 11일 from [http://www.koreahana.or.kr/intro/eGovHanaReportDetail.jsp?pk\\_seq=75083&page=9](http://www.koreahana.or.kr/intro/eGovHanaReportDetail.jsp?pk_seq=75083&page=9)

뉴스스 (2016, 12월 28일자). 탈북자라 놀림받는 아이들...차별 편견 여전. Retrieved 2017년 8월 13일 fr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4\\_0010204920 &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4_0010204920 &cID=10201&pID=10200)

류승아 (2009). 정신장애인의 경쟁 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3(4), 1-25.

류승아 (2010). 정신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 복귀는 가능한가?: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

-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49-69.
- 류승아 (2012). 정신장애인과 접촉경험이 정신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 연구, 22(1), 51-70.
- 무지개 행동 이반스쿨 (2013). 2012년 서울시 성소수자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결과 보고서. Retrieved 2017년 8월 13일 from [http://lgbtact.org/wp-content/uploads/2013/09/2012년서울시성소수자학생인권실태조사설문결과보고서\\_11.pdf](http://lgbtact.org/wp-content/uploads/2013/09/2012년서울시성소수자학생인권실태조사설문결과보고서_11.pdf)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2016 한국 인권 보고서.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박근우, 서미경 (2012).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학 생의 편견과 차별: AIDS, 수형자 사례 유형 과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28(4), 383-408.
- 박석돈, 조주현, 천지은 (2002). 장애인고용에 있어 고용주 인식 및 태도의 예비척도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 연구, 12(1), 95-114.
- 박은숙 (2013).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승대, 안태준 (2013). 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 보, 21(2), 1-24.
-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 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송수지,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83-99.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59-79.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문화, 11(1), 97-115.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 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충완, 우형진 (2014). 아주노동자 관련 범죄보 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 185-227.
- 원숙연 (2017).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한국 행정학보, 51(3), 225-256.
-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동성애자 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 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43-362.
- 윤인진 (2015). 한국인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 집, 109-110.
- 윤인진 (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 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 이달엽, 이승욱, 박혜전 (2003). 정신장애인, 가족, 재활스텝들의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 연구. 직업재활연구, 13(1), 147-168.
- 이민화, 서미경, 최경숙 (2016). 정신장애인에 대한 친숙함이 차별에 미치는 영향: 두려움과 도움의향을 매개로. 한국사회복지학, 68(11), 75-96.
- 이영선, 권보민, 이동훈 (2012).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29-147.
- 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한국교육, 41(3), 5-34.
- 이형렬, 이화진 (2005).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적 훈련 능력 및 훈련사업 체 특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15(1), 105-130.
- 장휘숙 (1995).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가치관 연구. 한림과학원(편), 전환기에 선 한국인의 가치관 (pp. 155-213). 서울: 한림과학원.
- 최만식, 조용하 (2014).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

-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 한국성인교육학회, 17 (4), 1-31.
- 최이정 (2009). 장애인 관련 TV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언론정보연구, 46(2), 67-99.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16). 보도자료: 종로3가 낙원동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남성 동성애자 혐오범죄 사건 일어나. Retrieved 2017년 8월 14일 from <http://www.ksrcr.org/>.
- 한국인권위원회 (2017, 4월 4일자).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Retrieved 2017년 5월 27일 from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9E%A5%EC%95%A0%EC%9D%B8&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0885>
- 홍성원, 이인혜 (2015).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편집증적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339-353.
- 황정미 (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2), 311-346.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07-19-02)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MA: Addison-Wesley.
- Blalock, H. N. (1984). Contextual-effects model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0, 353-372.
- Brown, R. (2017). *편견사회(Precjudice: Its social psychology)* (박희태, 류승아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0).
- Corrigan, P. W., Larson, J., Sells, M., Niessen, N., & Watson, A. C. (2007). Will filmed presentations of education and contact diminish mental illness stigma?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3, 171-181.
- Couture, S. M., & Penn, D. L. (2006). The effects of prospective naturalistic contact on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 635-645.
- Covarrubias, I., & Han, M. (2011). Mental health stigma about serious mental illness among MSW students: Social contact and attitude. *Social Work*, 56, 317-325.
- Curseu, P. L., Stoop, R., & Schalk, R. (2007). Prejudice toward immigrant workers among Dutch employees: Integrated threat theory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125-140.
- Falomir-Pichastor, J. M., Munoz-Rojas, D., Invernizzi, F., & Mugny, G. (2004). Perceived in-group threat as a factor moderating the influence of in-group norms on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135-153.
- Hand, C., & Tryssenaar, J. (2006). Small business employers' views on hiring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9, 166-173.
- Hewstone, M. (2015). Consequences of diversity for social cohesion and prejudice: The missing dimension of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Social Issues*, 71, 417-438.
- Hewstone, M., & Swart, H. (2011). Fifty-odd years of inter-group contact: From hypothesis to integrated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 374-86.
- Hinrichs, D. W., & Rosenberg, P. J. (2002). Attitudes toward gay, lesbian, and bisexual persons among heterosexual liberal art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43, 61-84.
- Hodson, G., Hewstone, M., & Swart, H. (2013).

- Advances in intergroup contact. Epilogue and future directions. In G. Hodson & M. Hewstone. (Eds.), *Advances in intergroup contact* (pp. 262-305).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Jackson, D., & Hearheringron, L. (2006). Young Jamaicans'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experimental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social distance and stigmatizing opin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 563-576.
- Jackson, J. (1993).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The Psychological Record, 43*, 395-414.
- Kite, M. E., & Whitely, B. E. (1996).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 persons, behaviors, and civil rights: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336-353.
- Lehavot, K., Lambert, A. J. (2007). Toward a greater understanding of antigay prejudice: On the role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role viol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279-292.
- Lemmer, G., & Wagner, U. (2015). Can we really reduce ethnic prejudice outside the lab? A meta-analysis of direct and indirect contact interven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 152-168.
- Link, B. G., & Cullen, F. T. (1986). Contact with the mentally ill and perceptions of how dangerous they a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289-303.
- Link, B. G., Yang, L. H., Phelan, J. C., & Collins, P. Y. (2004). Measuring mental illness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30*, 363-385.
- Mata, J., Ghavami, N., & Wittig, M. A. (2010).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early adolescents' sexual prejudi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 50-75.
- McLaren, L. M. (2003). Anti-immigrant prejudice in Europe: Contact, threat perception, and preferences for the exclusion of migrants. *Social Forces, 81*, 909-936.
- Meeus, J., Duriez, B., Vanbeselaere, N., Phalet, K., & Kuppens, P. (2008). *Where do negative outgroup attitudes come from? Combining an individual differences and an intergroup relations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Optajia, Croatia, July.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65-85.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751-783.
- Putnam, R. D. (2007).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 137-174.
- Smith, S. J., Axelton, A. M., & Saucier, D. A. (2009). The effects of contact on sexual prejudice: A meta-analysis. *Sex Roles, 61*, 178-191.
- Steffens, M. C. (2005).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49*, 39-65.
- Stephan, W. G., & Stephan, C. W.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In S. Oskamp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23-46). Mahwah, NJ: Erlbaum.
- Stephan, W. G., Renfro, C. L., Esses, V. M., Stephan, C. W., & Martin, T. (2005). The effects of feeling threatened on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559-576.
- Stephan, W. G., Ybarra, O., & Bachman, G. (1999). Prejudice toward immigrants: An integrated

- threat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2221-2237.
- Tausch, N., Tam, T., Hwestone, M., Kenworthy, J., & Cairns, E. (2007). Individual-level and group-level mediators of contact effects in Northern Irel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dentifi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541-556.
- Tervo, R. C., Ralmer, G., & Redinius, P. (2004). Health professional student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y. *Clinical Rehabilitation*, 18, 908-918.
- Triandis, H. C. (196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component of social attitud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420-430.
- Tropp, L. R., & Bianchi, R. A. (2006). Valuing diversity and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Social Issues*, 62, 533-551.
- Wai, A. K., & David, W. K. (2006).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between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9, 155-160.
- Wright, S. C., Aron, A., McLaughlin-Vople, T., & Ropp, S. A. (1997). The extended contact effect: Knowledge of cross-group friendships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3-90.
- 1 차원고접수 : 2017. 09. 09.  
수정원고접수 : 2017. 11. 25.  
최종게재결정 : 2017. 11. 27.

## **The relationships among contact, threat, and prejudice toward the minority groups**

**Seungah Ryu**

Kyungnam University

Healthy communities is likely to begin with accepting the coexistence of diverse groups in our society and acknowledging different ideas with us. Prejudice against minority groups interfere with building such a society. Current study examined the prejudice of North Korean refugees, multicultural families, LGBT, people with physical illness, and people with mental illness, which are defined as minority groups in our society, and demonstrated the impact of contact experience and threat on prejudice. The contact experience was classified as direct contact and indirect contact (informational contact through media), and the threat was divided into realistic threat and symbolic threat. The measures of prejudice were examined through social distance for each group. The total of 376 students were responded in this survey. The result showed that social distance was the highest amo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the groups that felt the threat were the refuge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reatens showed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in all group prejudices, but contact experiences represente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group, suggesting that the use of contact for bias reduction requires different interventions depending on the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prejudice reduction method for minority group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prejudice, social distance, contact, threat, minority groups